

## 앨버타와 오타와, 획기적인 에너지 협정 체결

2025년 11월 27일

캐나다 연방정부와 앨버타 주정부가 아시아 시장으로의 석유 수출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.

이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십은 앨버타와 캐나다가 공유하는 목표인 캐나다를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고 보다 활기차고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.

이번 에너지 협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.

- 연방정부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원주민 공동 소유 앨버타 비투멘 파이프라인이 국가 이익에 관련된 사업임을 공표할 예정입니다.
- 양측은 전략적 심해항을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하루 100 만 배럴 이상을 운송할 수 있고 민간 자금으로 건설된 원주민 공동 소유 비투멘 파이프라인의 신청, 승인 및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.
- 연방정부는 석유 및 가스 배출량에 연방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- 연방의 청정전력규제를 즉각 중지하고, 상당 부분이 캐나다와 동맹국의 소버린 컴퓨팅에 할당되는 수천 메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파워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.
- 양측은 앨버타의 비투멘이 전 세계에서 배출 원단위가 가장 낮은 중유 배럴 중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패스웨이(Pathways) 기업들과 협력하여 세계 최대 탄소 포집·사용 및 저장(CCUS)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.
- 앨버타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장기적 탄소 가격제와 엄격한 부문 특화 규제를 2026년 4월 1일까지 설계하고 시행할 것입니다. 이는 앨버타 TIER 시스템을 통해 앨버타 석유·가스 및 전력 부문의 대규모 배출 주체에 적용됩니다.

- 2026년 4월 1일까지 메탄 환산량 협정을 시행하고 2035년을 목표 시점으로 2014년 메탄 배출량 대비 75%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.
-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원주민과 주민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상당한 경제·재정적 혜택을 누리도록 원주민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와 즉각 논의하고 협력할 것입니다.
- 각종 법률, 규제, 정책의 변경을 통해 규제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.

이 신규 협정은 앨버타와 캐나다가 앨버타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, 앨버타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업계의 성장을 극대화하며, 캐나다의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,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또한, CCUS, 원자력 및 기타 배출량 감소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캐나다 석유, 가스, 전력 부문의 배출 원단위를 줄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“이는 앨버타가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자원 개발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온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. 앞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, 수백만 명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연방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오늘은 국가 건설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.”

다니엘 스미스(Danielle Smith) 수상

### 석유 파이프라인

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원주민 공동 소유 비투멘 파이프라인은 앨버타 주와 캐나다가 가장 귀중한 자원을 구매할 때 더 이상 한 소비자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 신규 파이프라인과 함께,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트랜스 마운틴(Trans Mountain) 파이프라인도 하루 30만에서 40만 배럴까지 확장될 것임을 협의했습니다.

나아가, 이 협정은 주요 사업 사무소가 아시아 향 신규 파이프라인을 승인하면 유조선 운항 금지법(tanker ban)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앨버타의 에너지 기업들이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 세계에 환경 리더십과 노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게 합니다.

“이 파이프라인은 파트너십과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. 이를 통해 퍼스트 네이션(First Nations)에 오래 지속되는 경제적 혜택이 창출되고, 가장 중요한 정부 대 정부, 공동체 대 공동체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. 원주민 지분 소유는 캐나다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으며, 원주민의 목소리가 모든 결정에 반영될 때 미래 세대를 뒷받침하는 신뢰와 미래가 구축될 것입니다.”

*조지 아칸드 주니어(George Arcand Jr), 알렉산더 퍼스트 네이션(Alexander First Nation) 지도자*

### 석유 및 가스 배출 상한제

연방정부는 석유 및 가스 배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석유 생산량과 민간 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, 이에 따라 앨버타가 2030년까지 일일 석유 생산량 6 백만 배럴, 2035년까지 8 백만 배럴로 설정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.

“카니 총리와 스미스 수상이 서명한 에너지 협정은 캐나다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이 경제에 필수적이며 활발히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. 경쟁력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가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협정입니다.”

*트리스탄 굿먼(Tristan Goodman), 캐나다 탐사·생산업자 협회(Explorers and Producers Association of Canada) 대표 및 CEO*

“앨버타 사업위원회는 캐나다의 생산량과 번영에 제한을 주었던 석유 및 가스 배출 상한제의 종료를 환영합니다. 이제 캐나다는 상한제 없이 진정으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전 세계로 수출하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모든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.”

*아담 레지(Adam Legge), 앨버타 사업위원회(Business Council of Alberta) 회장*

### 청정전력규제

이 협정의 일환으로 앨버타에서 즉각 중단되는 청정전력규제는 앨버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내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. 그 대신, 앨버타는 TIER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는 신규 산업 탄소 가격제를 위해 연방정부 및 업계와 협력할 것입니다.

### 패스웨이 및 배출량 감소

양 정부는 세계 최대 CCUS 인프라 사업 완료의 진전을 위해 패스웨이 기업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이를 통해 앨버타는 특히 탄소 포집·사용 및 저장을 포함한 배출량 감소 인프라의 개발과 시행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. 앨버타의 비투멘은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중유로 배출량이 더 높은 러시아, 베네수엘라, 이란의 석유를 대체하고 더 나은 환경적·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.

“패스웨이협회(Pathways Alliance)는 캐나다 경제에 핵심적인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양해각서를 시행한 카니 총리와 스미스 수상의 지도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 에너지 강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향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.”  
켄달 딜링(Kendall Dilling), 패스웨이협회 회장

## 관련 정보

- [캐나다 정부와 앨버타 정부 간의 양해각서](#)

## 멀티미디어

- [기자회견 보기](#)

## 미디어 문의

샘 블래켓(Sam Blackett)

Sam.Blackett@gov.ab.ca

587-589-6048

주수상 사무실 언론 비서관